

러시아 30년 선교 보고

요절: 창 17:5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학 3년때 허리를 다쳐 절망중에 있었습니다. 1985년 3월 상한 마음으로 기도원에 갔는데 그곳에서 요한 복음 3: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 하사에 감동을 받고 성령이 뜨겁게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 했습니다. UBF 모임에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여인인 사라 송 선교사와 아름다운 가정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혼한지 4년되던 날 저는 1991년 8월14일에 성 페티스버그 선교사로 왔습니다. 저는 처음 러시아에 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착한 시골 아저씨나 아주머니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한지 2주후에 제1회 러시아 여름 수양회에 키가196센티나 되는 세르게이 일학년 형제를 초청하여 함께 참석 했습니다. 빼빼르 대학에서 러시아어를 공부 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매일 아침6시에 센터에 가서 양식을 보고 기도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집에는 저녁에 들어 갔습니다.

1994년 4월에 모스크바로 왔습니다. 마이 항공대에서 초청한 양을 여름 수양회에 초청하기 위하여 버스로 10시간 걸리는 스몰렌스크에 주소만 가지고 찾아 갔습니다. 겨우 찾아 갔는데 형제의 할머니가 아파서 수양회에 갈수 없어 혼자서 돌아 와야 했습니다. 저는 캠퍼스 양들을 섬기는 목자가 되기 위하여 박사 과정에 들어 갔습니다. 저의 동역자가 저를 대신하여 4년간 자립을 감당했습니다. 이때 동역자는 3종의 십자가를 지느라고 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998년7월에 저는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농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문에 은사가 적은 저는 이를 통해 기도와 인내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자립하기 위해 전공과 관련이 없는 항공권 판매와 공연기획 일을 했습니다. 한 캐더린 선교사님이 16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수양회 때에는 사무실을 닫고 직원들과 함께 수양회에 갔습니다. 금요일에는 센터에서 밤에 기도하며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 놓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기도 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성경 공부 하고 소감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저희 사무실에 양들을 직원으로 쓰므로 실질적인 제자양성의 터가 되게 하셨습니다. 알렉세이 마우후 목자는 11년간 함께 일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여러 번 체험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가 소감 쓰는 것을 두려워하고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여름 수양회 때마다 인생소감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에서 한 달 동안 매일 합심기도하며 도왔을 때 성령께서 그의 내면에 역사하사 감동적인 소감을 써서 발표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선교사의 삶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배우고 하나님 나라 산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저에게 가장 귀한 재산 입니다. 선교지에 온지 14년이 되었을 때 찬바람과 봄 알러지가 시작 되었고 콧물이 수도꼭지를 틀어 놓은 듯 했습니다. 사라 송 선교사는 2006년 유방암 3기말 판정을 받고 한국에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목자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치료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을 감사 드립니다. 10여년 전부터는 둘이서 밤마다 함께 성경을 읽고 감사제목과 기도 제목을 찾아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6년전에는 가진 돈을 모두 투자 해 집을 지었습니다. 마침 러시아에 경제 위기가 와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가운데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 할 수 있어서 감사 드립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로 일이 없어서 매일 센터에 가서 성경읽고 기도 시간을 좀더 갖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거짓과 두려움, 연약함 감정의 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던 자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던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의 죄를 대신 감당 하시고 구속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자를 러시아 선교사로 불러 주시고 모스크바에서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배우도록 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4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이신 것을 배우게 된 것을 감사 드립니다. 고린도 전서 13:5에서 본성적으로 성급하고 화를 잘 내는 자에서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 합니다. 빌립보서2:3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씀으로 남을 존중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17쉬지 말고 기도 하라 말씀을 요절로 잡고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사랑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1서 5:5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에서 은혜를 크게 덧입고 2세들 인생 소

감을 도우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예수님의 복음 역사에 저를 동참시켜 주사 성경 선생으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아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들로 성장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정 교회를 이루게 된 것과 합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스크바 제자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여 러시아 영혼들의 목자들로 자라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러시아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길 기도 합니다.